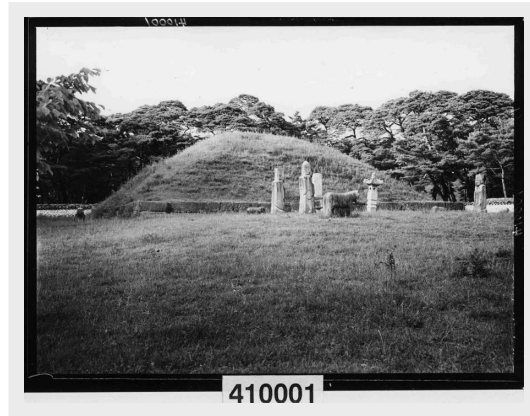


동명성왕[東明聖王]

천제의 손자임을 내세운 고구려의 개창자

기원전 58년 ~ 기원전 19년



평남 중화 동명왕릉
/ 국립중앙박물관 /

1 개요

동명성왕(東明聖王)은 고구려(高句麗)의 시조이다. 본래 부여(夫餘) 출신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이동하다가 졸본(卒本) 땅에 자리를 잡았다. 재지 세력인 비류국(沸流國)의 송양왕(松讓王)을 복속시키는 한편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주몽의 출생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았는데,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 호칭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주몽 외에도 추모(鄒牟), 추몽(鄒蒙), 중모(中牟) 등의 이칭들이 있는데, 모두 같은 음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추모는 5세기대 고구려인들이 남긴 금석문인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와 모두루모지(牟頭婁墓誌銘)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몽의 행적에 대해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출생의 과정이나 행적에 신이한 점이 매우 많아 모두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주몽이 국가의 시조인 이상 고구려 당대에도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윤색이 가해졌을 것이며, 후대 역사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졌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부여(東夫餘)의 왕인 금와왕(金蛙王)이 태백산(太白山) 남쪽의 우발수(優渤水)라는 곳에서 하백(河伯)의 딸인 유화(柳花)를 만났다. 유화는 자신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자칭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解慕漱)와 관계한 것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였다. 금와왕이 유화를 궁으로 데려오자, 햇빛이 따라다니며 유화를 비추더니 급기야 회임을 하게 되었다. 유화는 얼마 뒤 사람이 아닌 알을 낳았다. 상스럽지 않다고 여긴 금와왕이 알을 길 가운데 버렸으나 짐승들이 밟지 않고 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살펴 주기까지 하여 다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알을 깨고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주몽이라고 전한다. [관련사료](#)

그런데 이와 같은 주몽의 탄생 설화는 부여의 건국 설화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우선 부여의 시조 이름이 곧 주몽(朱蒙)이다. 부여의 본조 태조왕(太조王)의 아들 주몽(朱蒙)은 태백산에서 태어났